

읽을거리로도 제격인 책광고 하나

간단한 먹거리 하나, 소소한 일용품 하나를 구입하는 데도 광고의 침입을 피할 수 없는 광고의 홍수시대, 어차피 보는 광고라면 볼거리 읽을거리가 되고 은근히 이미지업해오는 것이 노골적으로 사달라고 부추기는 것보다 보기좋은 물론이다.

책광고도 마찬가지다. 책을 마치 과장의 딸이물 건처럼 왕창 세일한다고 외쳐대거나, 오로지 책을 팔기 위해 출판사를 차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광고는 가장 저급한 수준에 속한다. 또한 "베스트 셀러가 될 수밖에 없는……"의 화자자찬형 "최신

간이 지금 서점에……"의 유인형, "화제작……"의 센세이셔널리즘형 등의 직접적이고 선동적이기까지 한 문구보다는 차라리 신간정보에 가까운 책의 내용과 판권사항을 담는다면 작가의 말, 평론가의 서평에서 발췌한 광고는 오히려 신뢰감을 준다. 이런 것 모두도 믿을 만하지 못하여 조심스럽다는 독자들도 있지만, 서점에 직접 가보지 않는 이상 그나마 요긴한 정보가 된다.

최근 모 일간지의 한 키투이에 작은 돌출광고로 소개된 한 출판사의 광고문안은 출판광고의 구태

와 안일함을 벗고 있어 신선하게 와닿는다. 걸프 전과 이에 때맞춘 종말론이 출판시장에도 예외없이 엄습하던 때 이 출판사는 "종말은 오지 않습니다. 한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읍시다"라고 외치고 있다. 이어 다른 광고에서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몇가지의 자세'에 대해 연일 문구를 바꿔가며 내보냈다. 물론 이 출판사는 한 1년여 전부터 이런 광고를 시도해오고 있다. 이런 광고가 가능한 것은 해당 출판사의 독특한 출판컬러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저런 점을 감안하고 보아도 그래도 신선하게 와닿는 것은 좋은 책을 만든다는 것에만 주력, 광고쯤은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거나, 초판에 사용했던 광고문안을 몇달 후 심지어 해가 바뀌어도 문구 하나 바꾸지 않고 낸다거나 하는 성의 부족, 무신경을 극복하고 있는 점 때문이다.

— 정혜옥 기자

출판저널

통권 제 81호 / 1991년 4월 5일 발행

발행인 — 鄭鎮肅
편집인 — 金炳翼
인쇄인 — 李壹秀
편집부장 — 康鐵柱
기자 — 金芝媛 鄭素淵 崔兌源
 鄭惠玉 朴南貞
디자인 — 尹貞子
사진 — 鄭貞煥

업무차장 — 尹東鎬
업무·광고 — 李義天 崔炳天
 金允淳 金攸姬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 - 대한컴퓨터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權寧彬	琴亨泰	金光秀	金文煥
金錫滿	金聖坤	金彥鍾	金榮漢
金仁會	金鍾元	金治洙	金榮俊
金泰賢	金泰亨	朴明淳	朴星來
朴世熙	潘星完	邊衡尹	徐淵昊
宋相庸	申福龍	權鍾夏	安秉永
安福滿	梁文吉	吳光澤	柳一相
尹志寬	李淑淑	李萬烈	李光周
李基相	李斗暎	李萬勛	李炳勛
李相日	李勝羽	李元龍	李重漢
李姬載	林培燮	張必和	張會翼
鄭丙圭	鄭爽鍾	鄭雲喼	鄭錫錫
鄭鍾弘	曹南鉉	曹大鉉	崔鍾庫
韓相燮	韓勝憲	許碩烈	洪延善
黃鉉鉉			(가나다 순)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일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 회원제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로 11,000원(반년분) 또는 20,000원(1년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반년분 또는 1년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동할·수협·축협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불입하거나 또는 우편대체 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싸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가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료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재미있는 책이야기

구한말 우리나라의 서적 사정을 전해주는 책중 대표적인 것으로, 외교관으로 서울에 체재했던 프랑스인 모리스 쿠랑(1865~1935)의 「韓國書誌」가 있다. 이 책은 앙리 코르디에의 「중국서지」 및 오스카 나흐스트의 「일본서지」와 더불어 서양인의 손으로 편찬된 3대 동양서지로도 잘 알려져 있는 것으로서, 출간 즉시 프랑스의 아카데미 프랑세즈가 수여하는 '스타니스라 줄리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본문 3권이 1894~1896년간에, 그리고 보유편 1권이 1901년에 각각 파리에서 출간된 이 책은 저자 쿠랑이 접할 수 있었던 3821종의 한국서적을 ①언어 ②유교 ③文墨 ④儀範 ⑤史書 ⑦기에 ⑧教門 ⑨교통의 9개 부문으로 분류, 그것을 다시 여러 항목으로 세분하여 서지학적 해설과 문화사적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개화기의 우리 조상들이 어떤 책들을 읽었으며, 서양인들은 또 그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해했었는지를 알 수 있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서양인의 눈에 비친 우리들의 '옛모습'을 흥미롭게 재발견할 수 있다.

이 「한국서지」의 우리말 완역본은 아직 없는데, 쉽게 읽을 만한 초역본으로는 정기수교수가 서론 부분만을 번역하고 해설을 단 「조선서지학서설」이 '탐구신서' 제9권으로

나와 있다. 이 초역본에서 우리의 흥미를 끄는 부분을 발췌, 소개한다.

▲ 책을 빌려주는 곳 :

책을 볼 수 있는 것은 서점에서만이 아니고 「貰冊家」도 꽤 많이 있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특히 이야기책이나 노래책과 같은 평범한 책들이고, 이것들은 거의 모두가 한국어로 씌어져 있으며, 어떤 것은 印本이고 또 다른 것은 手寫本이다.

흔히 이러한 집들의 책은 서점에서 팔고 있는 것들보다도 더 잘 손질이 되어 있고 더 좋은 종이에 인쇄되어 있다. 주인은 이런 책을 매우 헐값에 빌려 주는데, 하루 한권에 10분의 1, 2푼 정도이다. 흔히 그는 보증금이나 담보물을 요구하는데, 예컨대 현금으로 몇냥이라거나, 현물로 화로나 남비 같은 것들이다.

▲ 한국의 종이 :

한국의 종이는 다나무 껍질로 만들어지는데…(중략)…가장 좋은 종이는 가을에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여간해서 찢어지지 않으며 두껍고 반들반들하고 상아빛을 띠고 있다. 찢어진 데는 숨 같고, 천처럼 질기고 보드랍기까지 하다. 이 최상질의 것은 그 용도가 희귀하여, 어떤 官用문서, 왕의 하사품 목록, 매우 소중한 인쇄 등을 위해서 밖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중질의 것은 종이의 조

직은 같으나 더 많이 두드러져 그보다 덜 두꺼운데, 이 때문에 같은 양의 재료를 가지고 더 많은 장수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다. (중략)

중질의 좋은 종류의 종이들은 과거의 답안용지로 사용되는데, 이 답안지는 그후 실업가들에 팔리어 기름이 먹여진다. 그리하여 종이는 더 질겨지고 완전히 방수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雨裝紙가 되고 장판지가 되며, 비구니를 덮고 부채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 한국의 대중소설 :

대부분의 소설들은 俗語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작자의 이름이 적혀 있는 일은 결코 없고, 연대도 드물게 밖에 밝혀져 있지 않으며, 어떤 것들은 중국것을 번역했거나 모방한 것이고, 또 다른 것은 독창적인 것으로서 중국과 한국역사의 알려진 사실들에 관련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적 근거도 없는 상상적 작품인데, 이러한 독창적인 것들 가운데서조차도 대부분의 소설의 줄거리가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이토록 한국인의 정서에 미치는 중국의 세력은 확고부동한 것이다.

그러나 소설에 나오는 이 중국은 언제나 별로 현실적인 것이 아니고, 시대착오가 많으며, 인물들은 줄곧 조금도 숨기지 않고 한국적인 사상

을 표현하고 있다.

무대의 장소가 어떻든간에 이러한 작품들의 공통점은 많으며 명백하다. 즉 성격연구가 없고 인물들이 언제나 똑같아, 과거에 장원급제하는 학생이나 적을 무찌르는 젊은 戰士, 재색을 겸비한 처녀, 젊은이들의 행복에 반대하는 아버지, 처녀를 탐내는 고약한 벼슬아치와 정체가 드러나는 그의 中傷, 자애로운 高官, 전술과 도술에 뛰어난 승려, 이러한 똑같은 유형들이 어디서나 나와, 이내 구면이 되어버린다.

줄거리는 단조롭다. 즉 젊은이들이 결혼하기에 이른다가, 또는 오랫동안 잃어버리고 있었던 아들을 찾게 된다거나 하는 이야기이다. 사건들이 겹쳐지고, 전쟁·유괴·파선·꿈·신기한 조짐·중상·유배 등이 설세 없이 연속된다.